

## 타액이용 에이즈 진단키트, 결과 부정확할 수도

로스앤젤리스의 동성연애자센터는 지난 11월 타액을 채취해 오라퀵(OraQuick)으로 에이즈 감염여부를 진단한 13명에서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결과가 나와 타액 진단을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에서도 오라퀵을 사용했던 상당수가 에이즈가 아님에도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진단됐다고 덧붙였다.

오라퀵은 오라슈어(OraSure)가 개발한 에이즈 테스트로 타액을 이용, 20분 만에 감염여부를 진단하는 것이 특징. 기존의 에이즈 테스트로 결과를 알려면 7일가량이 걸려 진단이 신속한 오라퀵이 선호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에 거짓 진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 동성연애자센터는 타액 대신 손가락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진단하고 있다.

한편 오라슈어는 거짓 진단이 나온 원인으로 테스트 사용을 잘못했거나 진단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질환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면서 현재 오라퀵 테스트로 타액을 이용하지 않는 병원으로는 로스앤젤레스 동성연애자센터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2005.12.19 미디어데이스)

## 美 보건당국, “성병신고는 비밀로 조용히”

무절제한 성생활을 부추기는 성매매 앞선 이메일이 성행하는 가운데 이제는 성병이나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익명이나 이메일 주소로 검사를 권유하는 새로운 이메일시스템이 등장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1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LA보건당국은 최근 웹사이트(www.inspotta.org)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이메일을 보내 성병유무나 성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매독, 임질, 에이즈 등 성관계를 통해 전염되는 모든 종류의 성병이다. 이 시스템의 운영자인

에이즈보건재단의 케린 멀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얼굴을 대면하고 물어보면 상당히 고통스럽게 여긴다”며 “서로 만날 필요없이 이런 질문에 대답하는 편이 차라리 성병의 전염경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원래 이 프로그램은 샌프란시스코시가 먼저 만들어 도입했는데 하루에 약 500통의 메일을 보내 성병의 전염여부를 확인한다.

이런 당국의 시도에 LA의 동성애자협

## “혈압높은 에이즈환자, 치료제가 정신질환 원인 가능성”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 에이즈치료제를 투여할 경우 정신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알리칸테에 있는 엘체대학병원의 펠릭스 구티에레스 박사는 “고혈압을 앓는 에이즈 환자들에게 치료제로 쓰이는 단백질효소 분해제인 에이즈치료에 주로 쓰이는 에파비렌스를 투여하자 중앙신경계에 이상이 올 확률이 5배나 높았다”고 전했다.

탁월한 에이즈 치료약이며 HIV가 더 이상 에이즈로 발전되는 것을 막는 단백질효소 분해제인 이 약이 정신질환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는 있었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지금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구티에레스는 “과거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없고 그저 혈압만 높은 에이즈환자 17명에게 이 약을 투여한 뒤 18개월간 중앙신경계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이중 10명이 수면장애 등 정신질환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외 다른 4명의 환자도 경미하기는 하지만 정신질환 초기증상에 시달렸다는 것이 의료진의 주장이다. 의료진은 “이중 2명은 우울증, 나머지 한명은 집중력에 문제가 생겼고 다른 한명은 심각한 편집증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들 4명은 이 증상이 일어난 직후 모두 약을 끊었고 현재는 안정된 상태다.

의료진은 “앞으로 고혈압환자에게 대체될 수 있는 에이즈치료제 개발과 함께 어느 정도의 혈압에서 이런 증상이 타오는지를 표준화시켜 의사들에게 투약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5.12.14 노컷뉴스)

회는 대대적인 환영의사를 밝혔다. 협회 측은 "많은 이들이 성행위를 할 파트너를 사귀는 장소를 이메일로 공개해 질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메일에 신고한 내용 가운데는 겨우 0.5%만이 하위진술일 뿐 나머지 99.5%는 진실이어서 조만간 캘리포니아 일대에 유행하는 성병의 전염경로를 다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A 인근 지역은 지난 2003년 한해에만 새로운 에이즈환자가 2400명, 임질 환자 9000여명, 매독환자도 630명이나 늘어 성병과의 전쟁이 시급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2005.12.18 노컷뉴스)

## 스리세븐, 에이즈용 세포독성 T 입파구 측정키트 시판

스리세븐(067290)은 9일 바이오벤처 사회사인 크레아젠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용 세포독성T 입파구(CTL) 측정 키트를 개발을 마치고 시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에이즈용 CTL 키트는 에이즈 환자의 혈액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CTL을 손쉽게 정확하게 측정해낼 수 있는 제품이다.

스리세븐은 CTL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만을 전문적으로 사멸하는 T 입파구라며 혈액과의 CTL량에 따라 환자의 회복 정도 또는 병의 진전을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리세븐은 지금까지는 실험용 쥐를 제외한 사람이나 영장류, 가족에서 CTL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나 제품이 없었다며 크레아젠이 개발한 CTL 키트는 이같은 기능을 수행

##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최강원 교수 국민훈장목련장 수여

질병관리본부(본부장·오대규)는 '05. 12. 8(목)~12. 9(금) 양일간 경주 현대호텔에서 '2005년 전염병관리사업 종합평가 대회'를 개최하고 유공자 및 우수기관 표창, 전염병관리사업 현안 토론, '05년 전염병관리사업 평가와 '06년도 사업방향 등을 논의한다.

이번 대회에서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장 최강원 교수(서울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가 헌신적인 자세로 에이즈 예방 및 에이즈 감염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목련장을 수여받는 등 모두 291명이 정부 포상을 받는다.

〈2005.12.07 보건복지부뉴스〉

면역치료제 개발과 연구, 그리고 치료 전후 환자의 예후판단에 간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5.12.09 전자신문)

## 중국 에이즈 부부 매혈로 19명 감염

중국 헤이룽창(黑龍江)성에서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감염인 부부의 상습적인 매혈(賣血)로 19명이 HIV에 감염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부부의 피를 수혈해 HIV에 감염된 환자와 가족들은 수혈을 수선한 병원을 상대로 3000만 위안(약 37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신경보가 보도했다. 이는 중국에서 에이즈와 관련한 소송 최대 배상금액 소송이다.

헤이룽장성 베이안(北安)건설농장병원은 병원의 응급 환자들에게 '쑤라오쓰(孫老四)'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전문 매혈꾼의 피를 수혈했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쑤라오쓰는 부인과 함께 매혈로 생계

를 유지했다.

HIV 양성 반응자인 이들 부부의 매혈은 이들로부터 수혈한 양모씨가 2004년 9월 에이즈에 감염됐고, 그해 10월 사망하면서 확인됐다. 중국 국가질병통제 당국은 양씨가 수혈한 베이안 건설농장병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최소한 19명이 '쑤라오쓰' 부부의 피를 수혈해 HIV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병원측은 쑤씨 부부 혈액을 제대로 검사하지도 않고 환자들에게 수혈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5.12.06 조선일보)

## 상하이에 에이즈 주제 식당 등장

중국 상하이(上海)에 에이즈를 주제로 하는 식당이 이달 초 등장해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콘돔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고 대만의 유력 방송사인 TVBS가 전했다. 이 식당은 중국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끓이는 음식의 일종인 '취궈'(火鍋)를 파는 업소로 식당 테이블 위와 유리창 등 곳곳에 에이즈를 예방하

자는 표어가 붙어있으며 손님 1명당 콘돔 1개씩을 나누어 주고 있다. 식당 벽에는 메모판도 붙어 있어 손님들에게 에이즈를 예방하는 방법들을 메모로 남겨 놓도록 요청하고 있다.

TVBS는 이 같은 식당에서 입맛이 나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식당을 찾은 한 고객이 "이 식당 내에서 에이즈 예방 선전을 하는 것은 의의가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 어색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005.12.05 세계일보〉

## 건국대 조명환 교수, 아·태 에이즈학회장으로 선출

지난 11월 29일 건국대학 조명환(이과대·생명과학) 교수가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 학회(AIDS Society of Asia and the Pacific, 아·태 에이즈 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아·태 에이즈 학회는 1990년, UN산하 에이즈 전담 기구인 UNAIDS의 지원 아래 창설된 기구로 아시아와 태평양의 45 개국이 가입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기구다.

현재 아시아의 에이즈 감염 환자 수는 약 830만 명으로 아프리카약 2300만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한국인 최초로 아·태 에이즈 학회 회장에 선출된 조명환 교수는 앞으로 에이즈 예방과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조명환 교수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클린턴 재단',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재단' 등과 공동 노력을 할 예정이다.

〈2005.12.05 인터넷 건대신문 건구기〉

## 中, 확 줄어든 에이즈 통계로 딜레마

중국 당국이 새로운 에이즈 감염인 통계발표를 앞두고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인의 수가 지난해 12월 최소 84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최신 통계에서는 이보다 20% 줄어든 67만 명으로 나타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처럼 통계 수치가 급감하면 일반인들이 통계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될 뿐 아니라 1년 사이 에이즈 발병으로 그만큼 사망했다는 오해를 살까 우려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2005.12.05 아이엠뉴스〉

## 인도 총리 "이제 안전한 섹스' 교육할 때"

세계 2위의 에이즈 인구를 보유한 인도가 이제는 성을 금지시키는 전통에서 벗어나 젊은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만모한 싱 총리가 1일 지적했다.

싱 총리는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청년 정치인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국가를 에이즈에서 보호하기 위해 이제는 안전한 섹스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됐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젊은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성생활에 대해 교육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이 2일 보도했다.

그는 "이는 인도가 공개된 장소는 차치하고라도 가정에서나 동료끼리도 섹스

를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지극히 보수적인 사회라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불안정한 성관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습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에이즈퇴치계획(UNAIDS)이 작년 7월에 발표한 인도의 에이즈 인구는 510만 명(2003년 말 기준)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530만명)에 이어 2위에 올라 있다.

그러나 이는 공식적인 기록일 뿐 실제로는 인도가 이미 남아공을 추월했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 펀드(GFFATM)'는 지난 5월 "인도가 남아공을 추월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GFFATM의 리처드 피켄 사무총장은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지부 발족식을 개최하면서 이같이 주장하고 "공식적인 수치는 남아공이 앞서지만 이 통계는 잘못된 것으로 인도가 세계 1위의 에이즈 국가"라고 단언했다.

UNAIDS가 작년 보고서에서 남아공의 감염인 범위를 450만 명에서 620만 명으로 잡았던 반면 인도는 최소 250만 명에서 최대 850만 명으로 추정된 것도 인도 에이즈 인구의 정확한 파악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미 중앙정보국(CIA)은 2010년에 인도의 에이즈 인구가 2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은 획기적인 조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오는 2033년이면 인도에서 현재의 전체 감염인보다 많은 매년 550만 명의 새로운 에이즈 감염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인도는 지난 5월 에이즈 퇴치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2003 회계연도 (2003.4~2004.3)의 신규 에이즈 감염인이 2만8천 명으로 전연도의 52만 명에 비해 95%나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나 지난달 인도를 방문한 피터 피오르 UNAIDS 사무국장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2005.12.02 조선일보〉

## 美연구팀 HIV 대항 항체 만들어

미국 연구팀이 에이즈 백신 개발에 진전을 이뤘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메릴랜드주립대학 인체바이러스연구소의 로버트 갈로 박사는 1년에 걸친 동물 실험에서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

간면역바이러스(HIV)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어냈다고 발표했다. 갈로 박사는 원숭이들에게 바이러스를 투입, 다양한 HIV 변종에 대한 항체를 형성하게 하는데 성공했다면서 "이번 연구로 백신 개발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항체는 넉달 동안만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과적인 백신이 나오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갈로 박사는 1983년 프랑스의 록 몽타니에 박사와 함께 HIV를 발견한 세계적인 에이즈 전문가다.

유엔에이즈(UNAIDS)와 세계보건기구(WHO)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에 즈음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전세계 에이즈 감염인이 4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310만 명이 에이즈로 숨졌다고 밝혔다.

항생제 요법을 이용한 치료제들은 나와 있지만 비싸기 때문에 빈곤지역의 에이즈 확산을 막는 데에는 역부족이다. 이 때문에 저렴한 백신 개발만이 에이즈 파국을 막는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 등에서 30차례 이상 백신 개발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한 사례는 없다. HIV는 매우 다양한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변종에 스스로 대처하는' 백신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과학자들은 보고 있다.

최근 유럽 최대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프랑스의 파스티르연구소와 함께 에이즈 백신 개발실험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HIV 유전자를 홍역 백신에 넣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5.12.01 문화일보〉

## 남아공에 에이즈환자많은 까닭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단일 국가로는 '죽음의 병'인 에이즈환자 및 에이즈 바이러스(HIV) 양성반응자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남아공 사람들은 절반가량이 HIV 양성반응자와 결혼해도 무방한 것으로 생각하는 한편 3분의 1기량은 '안전장치'를 할 경우 HIV 감염인과 성관계를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15~24세 연령층의 3분의 1은 지난 1년 이내에 1명 이상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200만 명의 HIV 양성반응자는 자신의 감염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사실은 넬슨 만델라 재단이 올해 인문과학연구소(HSRC)에 의뢰해 2세 이상 연령층 2만3천275명에 대해 면담 또는 채혈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연구팀은 이번 조사 결과 전체 HIV 감염률이 10.8%로 나타나 이를 전체 국민에 적용할 경우 약 480만 명이 HIV 양성반응자인 것으로 추산할 수 있는 만큼 약 200만 명의 HIV 감염인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모르는 채 생활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남성 중 가장 높은 HIV 감염률을 보이는 연령층은 30~34, 35~39세로 각각 23.3%의 감염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40~44세(17.5%), 25~29세(12.1%)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25~29세 연령층이 33.3%의 감염률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0~34세(26.0%), 20~24(23.9%), 35~39세(19.3%)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시시나 박사는 HIV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가능한 늦게 성관계를 맺도록 계몽하고 ▲성관계 파트너를 가능하면 1명으로 유지하며 ▲콘돔사용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05.12.01 국민일보〉